

교리로 보는 종교개혁 (15)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도대체 교회에서 선거는 왜 하나?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 안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직분자를 신자들의 선거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거에 의한 직분자 선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직분자의 선출은 성도들의 선거가 아니라 고위 성직자인 주교의 지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도 선거에 의한 선출이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와 같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교회가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선출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계시를 통해 알려 주실까? 웨이커 교도 같은 이들은 실제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우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제비뽑기방법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방법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다.

교회에서 투표는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분자 선출을 성도들의 분별력에 맡기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이 권한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 형편과 성도들을 가장 잘 아니까 목사의 뜻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로마가톨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혁교회가 지명을 거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명에 의한 선출은 선출된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목양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자기의 일면권을 가진 주교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지명제도로 인해 교권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했고 목사들은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성직예배는 그와 같은 타락한 교권주의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교권을 성도들에게 돌려줌으로 그와 같은 교권주의가 행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교회 장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됐지만 투표 제도 자체가 좋은 직분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는 잘못 사용될 때 소위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명은 위사람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유리하고, 투표는 대중들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 성도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투표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투표가 인기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투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 투표는 세상의 투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에서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이다. 즉 투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니 모두가 기뻐해야 한다. 심지어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참회해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투표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타남 뜻에 대해서 화를 내는 기인과 같은 이들도이다.

투표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한두 마디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투표가 무엇인지,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목사부터 스스로 잘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평소에도 부자녀들 교회인들에게 말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가르친 대로 실제로 목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가 항상 공정해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나 그룹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투표를 통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배로 보는 종교개혁 (15)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왜 사제들의 제스처와 기도들이 폐지되거나 바뀌었는지, 왜 제단이 성찬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문화량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로마가톨릭의 예배서에는 다양한 예배 상황에서 사용할 기도문들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예배서 안의 기도문과 미사경문(Canon)은 때때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잘못된 신학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 부처는 조빙글리가 작성했던 '수정된 미사 전문'(1523)이 이런 오류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처는 미사 안에서는 다양한 제스처들, 예를 들면 절하기 십자가 표시하기, 키스, 가슴을 치기, 손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거나, 사람들을 향하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또 로마가톨릭은 만약 이것들을 순서에서 빼먹거나 정해진 방법대로가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하면 그것을 끔찍한 죄로 여기는 인식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젊은 사제들이 제스처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능숙하게 잘 실행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영적인 시제로 간주됐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 성도들은 그들이 집례 하는 예배를 보기 위해 사제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부처는 이런 현실을 비판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라고 비난한다. 부처는 위와 같은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은 위선적인 행위와 마음이 따른 예배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내적인 사랑과 통합의 외적인 표현은 때때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찬 마음이 우선할 때 우리는 외적 제스처 속에서 의미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 제스처를 규정해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는 규칙은 그것을 규정하기가 예배이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통화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 제스처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규정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이끌 때가 많다고 부처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부처는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

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요약하자면 부처는 미사 속에서의 다양한 행동들과 제스처들이 37지 측면에서 신앙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제들은 여러 가지 예식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정된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 양심이 외부 규정과 요소들에 얽매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마음이 떠난 공허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는 또 한 가지의 사례를 드는데 그것은 십자 선호를 긋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부처는 당시 사람들이 터툴리안(150-225)의 기록에 따라 십자 선호를 이마에 긋는 것이 담대의 일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근거로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서도 긋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물론 초창기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며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열심히 행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더 큰 잘못을 낳았다. 결국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행위에 집중하고 말았다. 이런 잘못된 실천에 반대로, 부처는 표지(sign)는 표지이며, 표지로 남아야 하며, 결코 표지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십자가 표시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외부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성장에 유익할 때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적인 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활용될 때 외부적인 의식은 유용하다. 그러나 십자 선호 '긋기'에 대해서 부처는 그것이 좋은 기원을 가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오용과 잘못된 실천으로 성도들을 이끌었다고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로마가톨릭의 제단(altar)은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것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만찬상(altaris)을 언급하고 있기에 상(altaris)으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한다. 동시에 절전자는 회중을 보고 있어야 하며, 사제들이 회중을 등지고 있는 행위는 자신이 대표로 회중을 드리는 듯한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가리 뜨는 방향인 동쪽을 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시편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15)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KOSIN Refo500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3) (시편 22편)

김준범 목사/ 양의문교회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21절)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1절 하반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21절).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시제가 됐다. 21절은 1절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영영히 버리지 않고 사망의 진로에서 건져 일으켜주시길 것에 대한 약속이 됐다. 환란을 당하며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감당이 녹아내리고, 힘이 다 빠져 질그릇같이 쇠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시편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다(22-26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감사의 찬송으로 본 시편을 마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22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뒤에, '형제들에게' 이를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의 찬송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23절).

그가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비천한 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곤고한 자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24절).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주님을 인해 많은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의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선언한다(25절). 여호

와를 찾는 자들은 그에게서 만족함을 얻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담할 것이 없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기운을 낼 수 있다(26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27-31절)

이제 다윗은 온 땅과 세상 끝에 이루어질 영광을 내다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여호와와 같이므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27-28절).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에게서 먹고 배부르게 될 날. 그리고 그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29절).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후손들도 대대로 그분을 섬기며, 대대로 주님을 찬양 하리이다(30절). 그들은 주의 의를 장차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할 것이다(31절).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시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셨을 것이다. "내 형제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22-23절). 하 2:20.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 곧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며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다(24-29절).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의 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함으로 내다보셨다(30-31절).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다'(for he has done it)고 한 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떠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요 19:30). 그리스도께서는 운명하시기 전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이제 그 끝에 도달하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초대합니다



성역 41년!!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19년 2개월의 사역을 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는 김형태 목사님의 은퇴식을 거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목사

일시: 2017년 5월 3일(수) 오전 11시

장소: 여수수정로교회(당)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150 ☎061-654-0434

※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수정로교회

김형태 목사 은퇴준비위원회 드림

담임목사 청빙

모든민족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만 45세 ~ 만 55세
- 학력: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자
-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목사 임직 10년 이상 된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 자기 소개서
- 목회 계획서 (기초 + 향후계획/ A4용지 5매 이내)
- 최근 3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 (설교문 포함)
-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검진세(건강보험공단) 시행 검진표 가능

3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2017년 5월 19일 (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 제출처: 우)60950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1320번길 12(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민족교회 청빙위원회
- 문의: 청빙위원회 서기 장로(010-7478-1111)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청빙과정에서 만 사용되며, 타 용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음을 공고함.
- 청빙 여부는 개별 연락드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민족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